

■ 감사원, F1 감사결과 살펴보니

2294억원 이라던 공사비 5073억원

적자예견사업 “흑자” 왜곡 재정악화

“2016년 1112억 수입” 실제론 4855억 손해날 듯

전남도가 F1(포뮬러원) 대회를 주최하면서 주민구속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왜곡시키는가 하면 경주장 건설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수십억원의 혈세를 부당·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2016년까지 F1 대회를 치르면서 1조10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데다 운영 손실액만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적자’사업이 ‘흑자’로 둔갑= 감사원이 28일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및 예산집행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는

시기는 등 수익을 과도하게 산출,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왜곡시켰다. ‘돈 먹는 하마’를 ‘노나지’로 바꾸었다는 것으로, 예컨대 대회를 치르기 위한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시설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는가 하면, TV 중계권이나 개최권료 등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실제 경주장 건설 공사비는 애초 예상(2294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5073억원에 달했고 애초 2016년까지 111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검토된 운영 수익은 485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운영 비용이나 금융 비용은 누락시키면서 스폰서·부스 판매수익 등을 배분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모두 수익으로 집어넣는 등 ‘지출은 줄이고 수익은 늘렸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핵심 협약이면서 감독은 허술=감사원은 또 전남도가 F1 경주장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토석체취장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급하면서 애초보다 면적이 감소했는데 재대로 확인하지 않아 20억원 이상은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건설사가

‘경주장 주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와 달리 다른 나무를 심거나 아예 심지 않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해 혈세 9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남도가 KAVO와 맺은 경주장 시설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가보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가 민간사업자의 제원조달 능력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F1 경주장 건설 및 대회 운영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자 유치가 실패하자 도의회 의결이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없

이 도의 재정부담으로 F1 대회를 추진하는 바람에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점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전남도에는 관련 공무원 징계와 고비임 구조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과다지급된 토석체취장 복구비 28억원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전남도, “개최비용 재협의, 수지 개선”=전남도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대회 추진에 따라 전남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최비용 재협상을 벌이는 한편, 국고지원 확보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회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율로 건설한 주진체 제로 개편해 F1 대회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면산 산사태 피해 복구

지난 27일 우면산 산사태 피해를 입은 서울 방배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과 군 장병들이 28일 오후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산사태 붕괴 위험지역 48곳

광주, 절개지·구릉지 인근 아파트 밀집 폭우땐 인명피해 우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속출하면서 수십명이 사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지구가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공절개지와 자연구릉지 1264곳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A등급은 180곳, B등급 591곳, C등급 445곳으로 나타났고 붕괴 위험이 있는 D·E등급은 48곳으로 조사됐다.

D·E 등급을 시·군별로 보면 광양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고흥 7곳, 진도 6곳, 순천 4곳, 화순 3곳, 담양·나주·해남·보성 각 2곳, 여수·신안·완도·영광·강진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면 인근 주민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특히 “수해지역에서 생수 등 긴급지원 물품을 필요로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수해지역에서 생수 등 긴급지원 물품을 필요로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봉기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D·E

등급은 없었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인공절개지와 자연구릉지 인근에는 아파트와 일반 주택 등이 밀집돼 있어 일정난 암의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는 붕괴

위험지로 판정된 절개지는 없지만, 예기치 않은 많은 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옹벽 등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일선 자치구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설명 만정

- 김종우



한국의 ‘베네치아’로 만들면 어떨까??

“U대회 선수촌 소형평수 확대 공감”

姜시장- 화정주공 재건축 비대위 대화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이 조성되는 서구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28일 “소형 평수를 확대하자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 의실에서 열린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에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비상 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 등과 만나 “입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쇄선을 다하겠다”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소형평수 79㎡를 (522가구에서 388가구로) 대폭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말했다.

강 시장은 “애초 사업계획서대로 소형평수를 가구수와 비슷하게 짓도록 현대건설 경영진들에게 얘기하겠다”면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U대회 선수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구조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넓어 분양가가 높다는 비대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정밀하게 검증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도 조합장의 회의 참석에 반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20여 분간 지연됐다.

강 시장은 “앞으로 계획변경의

관리처분인가 등 선수촌을 최종적으로 건립하기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두 번 남아있다”며 “어렵사리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한 만큼 선수촌 건립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강 시장은 이어 “입주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은 시가 금융기관을 앞선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회의장 밖에서 정삼